

유럽연합 확대와 역내 교역흐름 및 교역구조 변화

문남철*

요약: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 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요어: 유럽연합, 교역흐름, 교역구조, 산업내 교역

1.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 및 지역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세계화된 경제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계화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인접 국가들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경제통합체를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서부유럽 국가들은 전후 경제회복과 강화된 보호 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인접국가들과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를 결성하고 자유무역(Free trade)과

공동시장(Common market, 1968)을 형성하여 경제적 이익의 상호증대를 모색해왔다. 유럽연합(EU, 1991)의 출범 이후에도 유럽통화통합(EMU, 1999)과 북부유럽(1995) 및 중·동부유럽(2004, 2007)으로 단일시장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광역화에 의한 규모의 이익과 경쟁과 특화를 통한 생산요소의 지리적 최적배분에 의한 역내 자급자족적 경제체계를 강화시켜오고 있다. 그 결과 1985년 유럽연합 전체 교역량의 41.5%와 전체 외국인 투자의 28.5%를 차지했던 역내 비중은 2006년 65.0%와 73.7%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유럽단일시장 출범과 지리적 확대에 따른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무역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통합과 지리적 확대에 의한 무역효과(Mendes, 1987; Dee and Gali, 2003)와 교역구조의 변화(Panazolou, Pentecost and Margues, 2006)에 집중되었다. 국내에서도 단일시장 출범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무역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연구 역시 대부분 유럽연합의 경제통합 및 지역확대에 따른 무역효과(박경석, 2000; 김미아, 2004)와 교역구조의 변화(김준근, 1996; 김창남, 1997)에 관한 분석이었다. 이에 반해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통합 및 지리적 확대에 따른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 및 교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경제적 통합의 심화와 더불어 7차에 걸친 지리적 확대에 산업화 수준과 생산요소, 생산성, 소득수준, 시장규모 등 경제적 요소의 격차를 지닌 다양한 회원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원들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요소로 회원국간 교역의 흐름과 교역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 및 지리적 확대에 따른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 및 교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 및 지리적 확대에 따른 역내 교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경제통합으로 역내시장에서 자유무역권이 형성되고 단일시장 지리적 영역의 확대에 교역권이 확대되면 새로운 교역환경에 맞추어 교역의 흐름은 변화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간 교역흐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유럽연합은 생산요소와 재화에 대한 수요의 차이를 지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통합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의 흐름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교역흐름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산업화 정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서부유럽국가군(중심부국가), 남부유럽국가군(준 주변부국가), 중·동부유럽국가군(주변부국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원국간 교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제통합체의 지리적

확대는 단순히 회원국간 상품교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공간의 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차이를 이용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분업구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원국간 새로운 교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한 'External and intra-European trade Statistical Yearbook'을 이용하였으며, 그 밖에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새로운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수집된 자료를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경제통합과 무역

지역경제통합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많은 이론적 논의가 있어왔다. 우선, 지역경제통합과 무역과의 관계는 Viner(1950)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지역경제통합으로 역내관세가 철폐되면 회원국간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역내 무역이 확대되고, 재화의 공급이 낮은 생산요소를 지닌 회원국으로 대체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가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모든 회원국의 후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으로 회원국간 무역장벽이 해소되고 비 회원국에 대해 공동관세가 부과되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수입가격의 차이로 수입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가 발생된다. 이러한 효과는 회원국의 후생효과를 증대시키지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Viner의 특정 지역의 고립적인 경제통합과는 달리 경쟁적인 세계경제 구조에서 특정 지역의 경

제통합은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경제통합의 효과는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Krugman(1991)의 지역경제통합체의 수 및 경제통합체의 규모의 확대와 세계후생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지역경제통합체의 수가 많고 규모가 작으면 소규모 지역경제통합체들간의 경쟁적인 전략으로 관세율은 낮게 수렴되어 세계후생은 극대화 된다. 이에 반해 지역경제통합체의 규모가 크면 시장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비회원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임으로써 무역전환 효과를 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통합체의 후생은 증대되지만 세계후생은 감소된다. 또한 Krugman(1993)은 경제통합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후생이 감소하는 원인은 관세율의 상승보다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ond and Syropoulos (1996)도 지역경제통합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외관세율이 증가하게 되고 규모가 큰 경제통합체의 후생은 더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지역경제통합체는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2) 지역경제통합과 산업내 교역

현대경제의 무역구조는 생산성과 요소부존 상태의 차이로 무역을 설명하는 전통적 무역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생산성과 생산요소 부존도의 큰 격차가 있을 경우, 각 국가는 비교우위에 의해 보다 유리한 산업에 특화하여 교역하는 산업간 교역(inter-industry trade)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교역에서는 비슷한 생산성과 생산요소를 지닌 국가간 동종 산업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이 동시에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산업내 교역(intra-industry trade)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내 교역은 제품의 차별화와 제품선호의 다양성, 아웃소싱, 제품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한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이를 상호 교역함으

로써 나타난다(Helpman and Krugman, 1985). 이러한 산업내 교역은 경제통합과 회원국의 확대로 교역이 활성화되고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제품선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게 된다.

또한 동종 산업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산업내 교역은 제품의 차별에 따라 수직적 산업내 교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과 수평적 산업내 교역(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으로 구분된다.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동일 산업에서 국가간 산업화 수준의 차이에 따른 기술수준과 임금격차로 인한 제품의 품질의 차이로 발생하는 교역이며,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품질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의 다양성과 선호의 다양성 인해 발생하는 교역이다(Falvey and Kierzowski, 1987). 이와 같은 교역은 지역경제통합체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산업화 수준의 격차 적은 국가간에는 제품선호의 다양성으로 인한 수평적 산업내 교역이 발달하며, 산업화 수준의 격차가 높은 국가간에는 제품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수직적 산업내 교역이 발달한다(Aturupane *et al.*, 1999; Crespo and Fontoura, 2001). 그러나 경제통합의 확대로 회원국간 직접투자 및 기술교류가 증대되어 생산 및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이들 국가의 교역구조는 수직적 산업내 교역에서 수평적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된다.

3. 경제적 통합 및 지리적 확대와 역내 교역

1) 유럽연합의 교역 추이

유럽연합의 주축이 된 서부유럽 국가들은 전후의 경제회복과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경제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유무역과 공동시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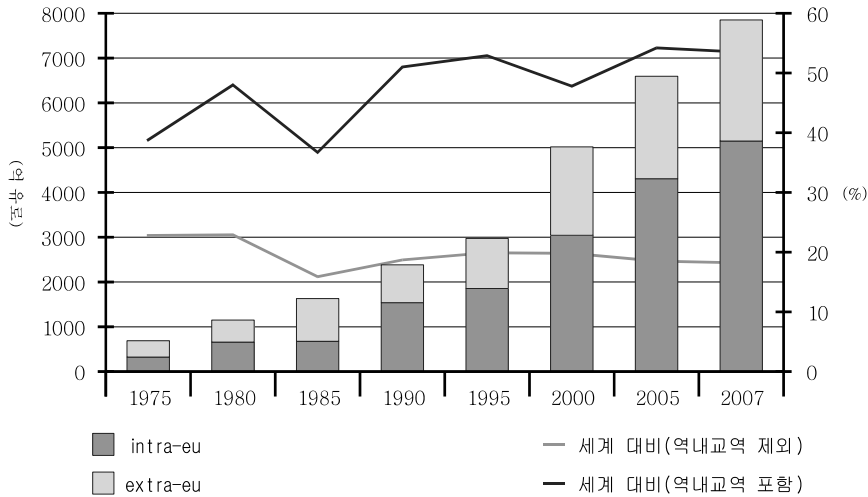


그림 1. 유럽연합의 교역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

경제통합을 통해 교역의 상호증대를 모색하여 왔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출범 이후에도 경제적 통합을 심화·발전시키고 단일시장을 지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역의 역내 자급자족체계를 강화시켜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교역량이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회원국간 교역량을 포함하여 1980년 4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유럽경제의 침체로 인한 회원국간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신흥 산업국의 등장으로 1985년 36.7%로 크게 감소하였다. 1980년대 후반 유럽경제 활성화와 시장확보를 위해 단일시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스페인을 포함한 남부유럽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시장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비중은 다시 1995년 52.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2000년 47.8%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중반 중·동부유럽 12개국의 가입으로 교역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비중은 2005년 54.2%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규 회원국의 협소한 시장규모로 단일시장 확대에 따

른 교역량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7년 현재 유럽연합은 세계교역량에서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유럽연합의 교역량 확대가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리적 확대가 교역증대에 기여를 하지만 신규 회원국이 교역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통합 및 지리적 확대와 역내 교역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교역 자유화를 위한 경제적 통합의 심화와 단일시장의 지리적 확대를 통해 교역의 역내 자급자족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지역경제 통합으로 역내 회원국간 관세가 철폐되면 회원국간 수입가격의 하락과 재화의 공급이 낮은 생산요소를 지닌 회원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역내 교역은 확대된다. 또한 비 회원국에 대해 공동관세가 부과되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수입가격의 차이로 수입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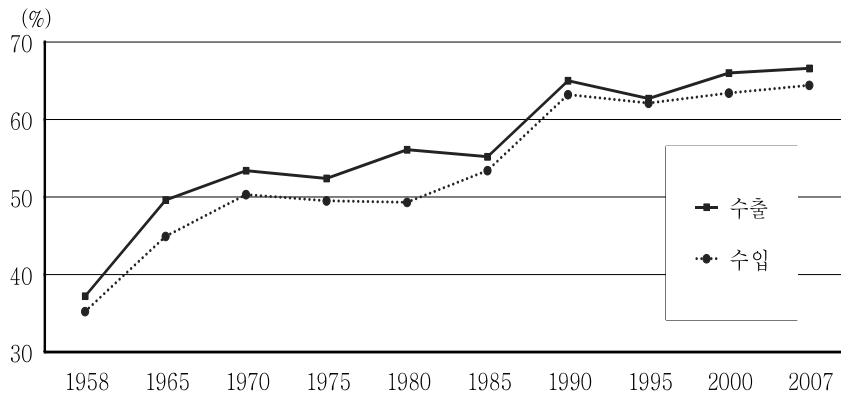
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때문에 역내 교역은 증대된다. 그리고 단일통화가 도입되면 환거래 비용의 절감과 제품의 교역가격의 투명성으로 인해 역내 교역은 증가하게 된다.

단일시장의 지리적 확대로 회원국의 수가 증가하면 회원국간 제품선호의 다양성과 제품의 차별화, 아웃소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내교역은 크게 확대된다. 또한 회원국의 규모가 증가하면 시장에 대한 보다 높은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비회원국에 대해 관세율을 높임으로써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역내 교역은 증가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정은 자유무역지대(1957년)-관세동맹(1968년)-단일시장(1993년)-단일통화(1999년)로 순차적으로 심화·발전되어 왔다. 또한

단일시장확대를 위한 지리적 확대과정은 초기 서부 유럽 6개국(1957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출발하여 서부유럽(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남부유럽(1981 그리스,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북부유럽(1990년 동독지역,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중·동부유럽(2004년 중·동부유럽 10개국,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국가로 확대해 왔다.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을 크게 증대시킨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과정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흐름의 변화를 1957년부터 1968년까지 자유무역 시기, 1968년부터 1993년까지 공동관세 시기,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단일시장 시기, 1999년 이후 단일통화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통합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단일시장		유럽통화 통합
특성	자유무역	공동관세 부과		상품, 생산요소 자유이동		단일통화
연도	1957	1968		1993		1999
지역적 확대	EC 출범	1차	2, 3차	4, 5차	6, 7차	
가입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동독지역,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중·동부유럽 12개국	
연도	1957	1973	1981, 1986	1990, 1995	2004, 2007	

그림 2. 경제적 통합 및 지리적 확대과정과 역내 교역 추이

주: 중동부유럽 12개국: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자료: 1958-75년, Sapir(1992) 1980년 이후, European Commission(2008)

첫 번째 시기는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유럽경제공동체(EEC) 6개 회원국(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간 무역에 관한 관세와 수량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역내 회원국간 교역이 급증한 시기이다. 전체 수출·입에서 역내회원국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 각 각 37.2%와 35.2%에서 1970년 53.4%와 50.3%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68년 역외 국가에 대한 공동관세가 도입되고, 회원국 수가 서부유럽 3개국(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과 남부유럽 3개국(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6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역외 국가에 대해 공동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1970년대 초반까지 역내 회원국간 교역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원유파동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따라 회원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입에서 역내 회원국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52.4%와 49.5%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역외국가의 진입으로부터 유럽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시장의 실현이 가시화되면서 역내 회원국간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수출·입에서 역내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각 각 55.2%와 53.4%에서 1990년 65.0%와 63.2%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93년 단일시장이 출범하고 구 동독지역(1990년)과 북부유럽 3개국(1995년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이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단일시장 출범과 회원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전체 수출·입에서 역내 회원국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2.7%와 62.1%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유럽의 경기침체와 유로통화제도의 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 가입한 북부유럽 3개국은 이미 1973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영국의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신규 회원국간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력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시장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입에 따른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시기는 1999년 유로단일통화가 출범하고 2004년 중·동부유럽 10개국(폴란드 외)과 2007년 2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크게 확대된 시기이다. 단일통화의 출범으로 제품의 교역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의 회원국 가입으로 단일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회원국간 수출·입 비중은 2000년 각 각 66.0%와 63.4%에서 2007년 66.6%와 64.4%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주요 교역상품인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교역이 역내 회원국 보다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신규 가입한 중·동부유럽국가들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협소하여 역내 교역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의 변화

1) 유럽연합 회원국의 그룹화

유럽연합은 그동안 7차에 걸친 지리적 확대로 회원국간 산업화 수준과 생산요소, 생산성, 소득수준, 시장규모 등 생산과 수요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27개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3개의 그룹으로 계층화할 수 있다.

우선,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만 달러 이상이며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높은 비중을 보이는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아일랜드)을 서부유럽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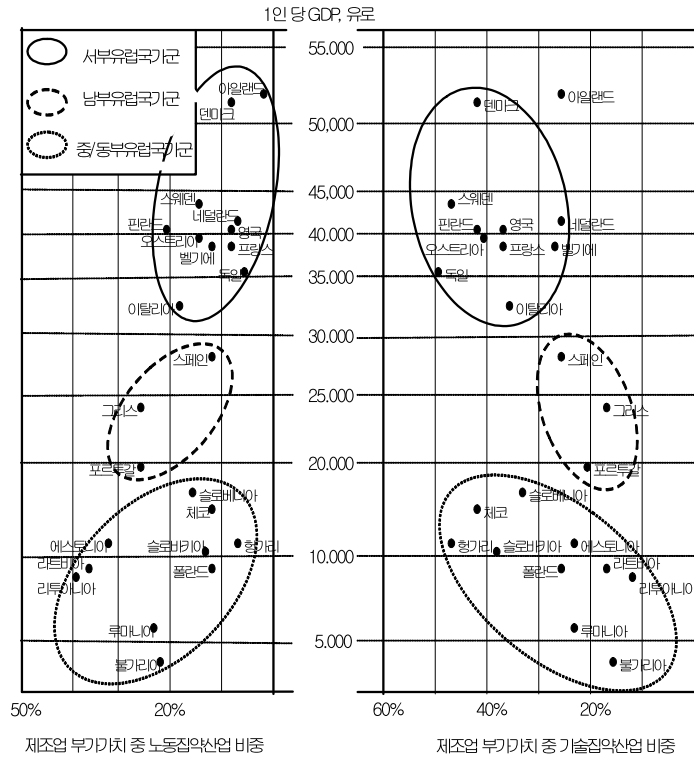


그림 3. 유럽연합 회원국의 그룹화

주: 노동집약산업: 섬유·의류, 가죽·신발, 목재가공, 기술집약산업: 산업용기계, 전자기계, 정밀기계, 운송기계
 자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EEC)의 회원국이거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과거 회원국들로 유럽연합의 중심부 국가를 구성한다.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만~3만 달러에 기술집약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전체 제조업부가가치의 20% 내외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을 남부유럽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국가는 서부유럽국가군에 비해 낮은 산업화 수준으로 기술수준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1980년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한 국가들로 준 주변부 국가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만 달러 미만에 노동집약산업과 기술집약산업이 전체 제조업부가가치의 약 10~40%를 차지하는 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몰타)을 중·동부유럽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국가군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국가들로 가장 최근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들이며 주변부 국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는 과거 냉전시기 군수산업의 발달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높은 집중을 보이지만 낮은 소득수준과 낮은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구조를 갖기 때문에 주변부 국가에 포함하였다.

2) 그룹간 교역흐름

유럽연합 전체 교역량에서 회원국간 교역량이 차

지하는 비중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로 1958년 약 35%에서 1980년 51%, 1990년 64%, 2007년에는 6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역내 교역의 확대는 중심부인 서부유럽국가군이 80% 이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남부유럽국가군과 중·동부유럽국가군 등 준 주변부와 주변부 국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즉, 역내 수출에서 서부유럽국가군의 비중은 1980년 95.5%에서 2007년 77.0%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남부유럽국가군은 같은 기간 4.5%에서 9.8%로, 중·동부유럽국가군은 2000년 7.5%에서 2007년 13.2%로 크게 증가하였다. 역내 수입에서도 서부유럽국가군의 비중은 1980년 96.3%에서 2007년 81.9%로 감소하였으나 남부유럽국가군은 같은 기간 3.7%에서 6.4%로, 중·동부유럽국가군은 2000년 6.4%에서 2007년 1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모든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나, 서부유럽국가군에 비해 남부유럽과 중·동부유럽국가군의 역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부유럽국가군의 역내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1980년 각 각 60%와 55.0%에서 2007년 67.0%와 62.0%로 증가한 반면에 남부유럽국가군의 수출·입 의존도는 1980년 각 각 55.0%와 36.9%에서 2007년 71.3%와 64.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유럽국가군의 역내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2007년 현재 약 8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역내 무역확대로 모든 그룹의 역내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증대되었으며, 특히 재화의 공급이 낮은 생산요소를 지닌 회원국으로 대체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되어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국가군의 역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그룹별간 역내 교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서부유럽국가군의 역내 교역은 수출·입 모두 서부유럽국가에 대한 비중이 1980년 각 각 94.6%와 95.8%에서 2007년 77.5%와 82.9%로 감소하였으나 남부유럽국가군에 대한 비중은 1980년 5.4%와 4.2%에서 1990년 16.6%와 6.0%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표 1. 유럽연합 그룹별 역내 수출 분포

(단위: %)

수출/수입	연도	유럽연합	서부유럽	남부유럽	중·동부유럽
유럽연합	1980	61.0(100.0)	96.3	3.7	-
	1990	65.0(100.0)	94.6	5.4	-
	2000	66.0(100.0)	87.0	6.6	6.4
	2007	66.6(100.0)	81.9	6.4	11.7
서부유럽	1980	60.0(100.0)	94.6	5.4	-
	1990	64.0(100.0)	83.4	16.6	-
	2000	66.0(100.0)	81.9	10.1	8.0
	2007	67.0(100.0)	77.5	10.3	12.1
남부유럽	1980	55.0(100.0)	92.6	7.4	-
	1990	68.2(100.0)	89.2	10.8	-
	2000	70.0(100.0)	79.6	15.9	4.5
	2007	71.3(100.0)	75.2	17.3	7.3
중·동부유럽	1980	-	-	-	-
	1990	-	-	-	-
	2000	-(100.0)	80.9	3.1	6.0
	2007	78.0(100.0)	71.1	4.6	24.3

표 2. 유럽연합 그룹별 역대 수입 분포

(단위: %)

수출 \ 수입	연도	유럽연합	서부유럽	남부유럽	중/동부유럽
유럽연합	1980	53.9(100.0)	95.5	4.5	-
	1990	63.2(100.0)	91.3	8.7	-
	2000	63.4(100.0)	82.9	9.6	7.5
	2007	64.4(100.0)	77.0	9.8	13.2
서부유럽	1980	55.0(100.0)	95.8	4.2	-
	1990	58.0(100.0)	94.0	6.0	-
	2000	59.0(100.0)	86.0	6.7	7.3
	2007	62.0(100.0)	82.9	6.2	10.9
남부유럽	1980	36.9(100.0)	94.5	5.5	-
	1990	62.7(100.0)	92.3	7.7	-
	2000	63.1(100.0)	86.7	10.8	2.5
	2007	64.0(100.0)	83.0	11.5	5.5
중·동부유럽	1980	-	-	-	-
	1990	-	-	-	-
	2000	-(100.0)	81.7	4.1	14.2
	2007	79.0(100.0)	74.5	3.8	21.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유럽에 대한 비중은 2000년 각 각 8.0%와 7.3%에서 2007년 12.1%와 1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유럽국가의 남부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교역증대는 1980년대 남부유럽 국가의 신규 회원국 가입과 2000년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으로 새로운 상품시장과 생산공간이 확대되어 이들 지역과 많은 교역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남부유럽국가군의 서부유럽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1980년 92.6%와 9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75.2%와 83.0%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남부유럽에 대한 비중은 같은 기간 7.4%와 5.5%에서 17.3%와 11.5%로, 중·동부유럽국가에 대한 비중은 2000년 4.5%와 2.5%에서 2007년 7.3%와 5.5%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중·동부유럽국가군의 서부유럽에 대한 수출·입 비중 역시 2000년 각 각 80.9%와 81.7%에서 2007년에는 71.1%와 74.5%로 현저히 약화되었고 남부유럽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같은

기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동부유럽에 대한 비중은 같은 기간 수출은 6.0%에서 24.3%, 수입은 14.2%에서 2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남부유럽국가간 또는 중·동부유럽국가간 활발한 교역증가는 서부유럽에서 이전된 저부가가치 제조상품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주변부 국가들간에 교역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지역에 분산 입지한 생산단위간 기업내 교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역대 회원국간 교역구조의 변화

1) 산업내 교역

유럽연합의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회원국간 자유로운 상품 및 자본의 이동과 단일시장의 지리적 확대로

표 3. 유럽연합 역내 교역구조 추이

	연도	산업간 교역	산업내 교역	수평적	수직적
EU-12	1980	46.6	53.4	18.1	35.3
	1985	47.5	52.4	17.9	34.4
	1994	38.5	61.5	19.2	42.3
EU-15	1999	39.0	61.0	17.2	43.8
프랑스	1999	29.7	70.3	23.1	47.2
독일		32.0	68.0	18.1	49.9
벨기에		34.0	66.0	24.8	41.2
영국		34.1	65.9	13.6	52.3
네덜란드		40.7	59.3	16.2	43.1
오스트리아		42.8	57.2	15.0	42.2
이탈리아		45.4	54.6	14.8	39.8
스웨덴		54.6	45.4	7.2	38.2
덴마크		55.0	44.5	9.1	35.4
아일랜드		59.3	40.7	5.6	35.1
핀란드		68.9	31.1	5.5	25.6
그리스		1980	86.6	13.4	2.2
	1999	85.7	14.3	2.9	11.4
스페인	1985	63.5	36.5	10.1	26.4
	1999	44.0	56.0	20.8	35.2
포르투갈	1985	85.4	14.6	4.1	10.2
	1999	61.4	38.6	11.5	27.1
체코	1993	63.6	36.4	3.8	32.6
	1996	52.3	47.7	9.6	38.1
헝가리	1993	67.8	32.2	4.5	27.7
	1996	62.7	37.3	6.4	30.9
슬로베니아	1993	67.7	32.3	9.0	23.3
	1996	67.9	32.1	4.8	27.3
슬로바키아	1993	82.1	17.9	3.7	14.2
	1996	74.6	25.4	5.7	19.7
폴란드	1993	79.3	20.7	5.0	15.7
	1996	76.6	23.4	2.7	20.7
루마니아	1993	88.9	11.1	2.7	8.4
	1996	85.0	15.0	1.7	13.3
불가리아	1993	88.4	11.6	1.9	9.7
	1996	86.3	13.7	2.6	11.1

자료: 중·동부유럽국, Freudenberg & Lemoine(1999), 서부 및 남부유럽국가군: Fontagne, Freudenberg & Peridy(1998) Fontagne & Freudenberg(2002)

규모경계가 가능해지면서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동일 산업내 교역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유럽연합 전체 역내 교역에서 국가간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간 특정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산업간 교역은 1980년 46.6%에서 1999년 39.0%로 감소한 반면에 동일 산업내에서 유사한 상품을 수출 및 수입하는 산업내 교역은 같은 기간 53.4%에서 61.0%로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동종 산업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교역하는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1980년 18.1%에서 1999년 17.2%로 다소 감소한 반면에 기술수준 및 임금수준의 지리적 차이로 인해 제품의 질로 발생하는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1980년 35.3%에서 1999년 43.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룹별 역내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산업내 교역은 일반적으로 서부유럽의 중심부 국가에서 전체 역내 교역의 50-70%로 높은 반면에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의 준 주변부 및 주변부 국가에서 60-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부유럽의 중심부 국가는 산업내 교역이 전체 역내 교역의 65-70%에 달했으며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국가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부유럽국가는 산업간 교역이 전체 역내 교

역의 약 60-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부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경제통합의 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와 더불어 기술수준의 조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산업내 교역 비중은 1985년 36.5%와 14.6%에서 1999년 56.0%와 38.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도 산업내 교역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직적 산업내 교역이 전체 산업내 교역의 70-80%로 역내 교역량의 많은 부분이 산업내 수직적 교역임을 알 수 있다.

그룹간 역내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서부유럽의 산업내 교역은 중심부 국가간에 이루어지며 남부유럽 국가 및 중·동부유럽국가의 산업간 교역은 주로 주변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교역은 거의 대부분 산업간 교역으로 이루어져 있다(Yvars, 2001).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영국,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서부유럽국가간 상호교역은 산업내

표 4. 유럽연합 주요국의 산업내 상호 교역(2000)

	산업내 교역(%)	수평적(%)	수직적(%)
독일-프랑스	86.2	43.0	43.2
네덜란드-벨기에	85.1	38.6	46.3
프랑스-벨기에	80.4	38.3	42.1
프랑스-영국	77.1	30.8	45.5
독일-벨기에	76.8	35.5	41.3
오스트리아-독일	76.6	24.3	52.7
독일-네덜란드	76.0	33.8	42.1
프랑스-이탈리아	68.8	33.6	35.2
영국-아일랜드	69.4	23.1	46.3
프랑스-스페인	76.5	44.0	32.4
독일-스페인	61.3	31.2	30.1
독일-체코	72.9	22.4	50.5

자료: Fontagne *et al.*, (2006)

교역이 76-83%로 지배적이며, 산업내 교역에서도 회원국간 차이는 있지만 산업내 수직적 교역이 수평적 교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서부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국가간의 교역은 수직적 산업내 교역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것은 산업화 수준의 차이를 지닌 서부유럽과 중·동부유럽 회원국간 산업의 지리적 분산입지와 이에 따른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서부유럽국가와 남부유럽국가간 교역은 산업간 수평적 교역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2) 기업내 교역: 프랑스와 중·동부유럽의 경우

산업내 교역에서도 기업들이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확대된 생산공간에서 국가 및 지역간 기술수준 및 임금격차 등의 상호보완성에 따라 상이한 생산활동을 지리적으로 분산 입지시켜 교역하는 기업내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내 교역은 생산공정의 기술적 분리와 지리적 분산이 쉽고, 국가간 생산비용의 차이가 크고, 저렴한 운송비용으로 국제적 결합생산이 가능한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정보·통신, 전기·전자, 정밀기계 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과 섬유·의류, 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서부유럽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와 중·동부유럽 8개국간 기업내 교역을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중·동부유럽국가로 수출된 제품의 약 55%와 중·동부유럽에서 프랑스로 수입된 제품의 약 61%가 기업내 교역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 지역간 기업내 교역은 자동차(수출·입의 84.6%와 99.9%)와 일반 전기·전자제품(61.4%와 94.1%)에서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유·의류 제품(29.9%와 34.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자부품의 기업내 교역은 수출(95.4%)은 매우 높으나 수입(28.3%)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 있다. 자동차와 일반 전기·전자제품, 전자부품의 기업내 교역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의 역내 생산 분업체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해 섬유·의류 제품의 기업내 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제적인 하청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내 교역구조는 프랑스와 중·동부유럽국 사이에 수직적 교역구조 보여준다. 전자부품의 중·동부유럽 수출의 92%와 섬유·의류 수출의 83%는 저임금 노동을 이용한 가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섬유·의류 수입의 98%는 넓은 소비시장을 지닌 프랑스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1990년대 이후 유럽차원에서 이루어진 생산조직과 일치한다(Fouquin *et al.* 2002). 이에 반해 자동차의 중·동부유럽 수출의 88.5%와 수입의 100%, 일반 전기·전자의 중·동부유럽 수출의 87.5%와 수입의 70.3%가 중·동부유럽과 프랑스에서 재판매를 위해 교역되었다. 이것은 국가간 기술수준과 소비구조의 차이에 따라 품질의 차이를 지니는 제품을 생산한 후 교역하는 수직적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프랑스와 중·동부유럽간 기업내 교역 구조(2003)

	프랑스 ⇒ 중동부유럽국			중동부유럽국 ⇒ 프랑스		
	기업내 비중	재판매 비중	가공비중	기업내 비중	재판매 비중	가공비중
자동차	84.6	88.5	11.5	99.9	100.0	0.0
일반 전기·전자	61.4	70.3	29.7	94.1	87.5	12.4
섬유·의류	29.9	10.5	83.3	34.6	97.7	1.6
전자부품	95.4	8.3	91.7	28.3	13.0	87.0
전체 산업	55.0	65.6	34.4	61.0	78.3	21.7

자료: Sachwald(2005)

6. 결론

유럽연합은 교역의 역내 자급자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 통합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단일 시장의 지리적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7차에 걸친 지리적 확대로 회원국들간에는 산업화 수준, 생산요소, 생산성, 소득수준, 시장규모 등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회원국들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회원국들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 및 지역적 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교역흐름 및 교역구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유럽연합의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 가입이 교역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동부유럽의 모든 그룹의 역내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재화의 공급이 낮은 생산요소를 지닌 회원국으로 대체되는 무역창출효과로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회원국간 교역의 흐름은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부유럽의 중심부 국가간 교역 비중은 감소하고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의 준 주변부 및 주변부 국가간 교역은 증대되었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동종 산업내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교역하는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기술수준 및 임금수준의 지리적 차이에 의한 제품의 질로 발생하는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

다.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중심부 국가간 교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동부유럽의 준 주변부 및 주변부 국가간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국가와 중·동부유럽 일부국가의 교역구조는 경제통합의 확대에 따른 회원국간 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와 더불어 기술수준의 조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내 교역에서도 기업들이 확대된 생산공간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간 기술수준 및 임금격차 등의 상호보완성에 따라 상이한 생산활동을 지리적으로 분산 입지시켜 교역하는 기업내 수직적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간 상품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미아, 2004, “유럽통합과정의 무역 및 성장효과에 관한 패널분석,” 무역학회지 29(6), pp.5-21.
- 김중근, 1996, “유럽지역 통합과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1(2), pp.99-128.
- 김창남, 1997, “유럽연합제국의 역내 분업체제와 상호의존,” 비교경제연구 5, pp.489-539.
- 문남철, 2004,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pp.371-388.
- 문남철, 2004,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와 투자입지 및 경제공간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pp.698-712.
- 문남철, 2006, “EU의 지역적 확대와 자동차 생산체제의 지리적 재구조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2), pp.243-260.
- 박경석, 2000, “유럽공동체 확대의 무역효과,” EU학 연구 5(1), pp.87-119.
- Aturupane, C., Djankov, S. and Hoekman, B., 1999,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between

- Eastern Europe and the European Union," *Review of World Economics* 135(1), pp.62-81.
- Bond, E. W. and Syropoulos, C., 1996, "The size of trading blocs: Market power and world welfare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0, pp.411-437.
- Crespo, N. and Fontoura, M. P., 2004, "Intra-industry trade by types: What can we learn from Portuguese data?," *Review of World Economics* 140(1), pp.52-79.
- European Commission, 2008, *External and intra-European trade statistical yearbook-Data 1958-2007*, Luxembourg: Eurostat.
- Falvey, R. E. and Kierzkowski, H., 1987, Product quality, intra-industry trade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Kierzkowski, H.(ed.), *Protection and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trade: Essays in Honour of W. M. Corden*, Oxford & New York: Basil Blackwell, pp.143-161.
- Fontagne, L. and Freudenberg, M., 2002, Long-term trends in intra-industry trade, in Lloyd, P. and Lee, H. H.(eds.), *Frontiers of Research in Intra-Industry Trad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131-158.
- Fontagne, L., Freudenberg, M. and Gaulier G., 2006, "A Systematic Decomposition of World Trade into Horizontal and Vertical IIT," *Review of World Economics* 142(3), pp.459-475.
- Fontagne, L., Freudenberg, M. and Peridy, N., 1998, "Intra-industry trade and the single market: Quality matters," *CEPR Discussion Paper 1959*,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Helpman, E. and Krugman P. R.,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Cambridge, Mass: MIT Press.
- Krugman, P., 1991, Is Bilateralism bad? in Helpman, E. and Razin, A.(ed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Cambridge, Mass: MIT Press.
- Krugman, P., 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alytical notes, in De Melo, J. and Panagariya, A.(eds.), *New Dimension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pp.58-79.
- Papazoglou, C., Pentecost, E. J. and Marques, H., 2006, "A gravity model forecast of the potential trade effects of EU enlargement: lesson from 2004 and path-dependency in integration," *The World Economy* 29(8), pp.1077-1089.
- Sachwald, F., 2005, Localisation de la production en Europe: impact de l'elargissement et de la mondialisation, in Sachwald, F.(ed.), *L'industrie en France et la mondialisation*, Paris: SESSI.
- Sapir, A., 1992,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The Economic Journal* 102, pp. 1491-1506.
- Viner, J., 1950, *The Customs Union Issues*,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Yvars, B., 2001, *Economie de l'Union Europeenne*, Paris: Dunod.
-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최종열람일: 2009년 9월 20일)
- 교신: 문남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전화: 062-530-2680, 이메일: mnc83@hanmail.net
- Correspondence: Nam-Cheol Moon,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062-530-2680, E-mail: mnc83@hanmail.net

최초투고일 2009년 9월 30일

최종접수일 2009년 12월 1일

Intra-European Trade Flow and Trade Structure

Nam-Cheol Moon*

Abstract :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d geographical enlargement brought change in the intra-european trade flow and a trade structure. The first, an european enlargemen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intra-european trade, but its effect relatively becomes smaller successive enlargement. The second, the intra-industry trade increases in the intra-european trade according as a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d enlargement make possible the economy of scale. In the intra-industry trade, the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decreases and th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ncreases.

The third, the Western Europe's trade is generally an intra-industry trade, the trade of Southern Europe, Central and Eastern Europe is an inter-industry trade. But the South Europe's trade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s trade change from the inter-industry trade to the intra-industry trade.

Keywords : EU, trade flow, trade structure, intra-industry trade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